

“모기때 기승 여름에도 긴팔 입어요”

승주읍 주민들, 순천광양축협 축사 철거 요구

분뇨 흘러 축내저수지 오염…조합측 모른 체

순천광양축협이 축내저수지 오염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주변 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없이 증축을 허가해 준 순천시도 행정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

26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승주읍 주민들과 순천광양축협(이하 축협)은 지난 25일 승주읍 사무소 2층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사에서 흘러나온 분뇨로 인한 저수지 오염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축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와 파리·모기때에 수년 동안 시달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저수지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 주민은 “30여 년 가까이 악취와 파리·모기때에 시달렸음에도 아직까지 사과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저수지 주변 논에서는 새참도 먹을 수 없고 여름에도 두꺼운 긴팔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모기때가 기승을 부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성이 축협조합장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거나 모기약을 지급했

다고 말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조합장은 최근 3년여 동안 모기와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는 주민들의 말에 말 끝을 흐리고 말했다.

주민들은 저수지의 수질이 농사에도 적합하지 않은 6등급인 점을 지적하며, 저수지 오염이 표면화되자 뒤늦게 시설을 정비하는 축협행태도 지적했다. 최근에서야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퇴비사 벽면에 판넬을 설치하고 축사물받이와 옹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 “수십 년 동안 분뇨가 저수지로 흘러들도록 놔뒀다가 사건이 터지자 이제야 임시방편적인 시설을 하고 있다”며 “그것으로 잘못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등을 어겼을 가능성은 제기하며, 주민들의 없이 축사를 증축

하고 사육 수를 늘리도록 허가한 순천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농어촌정비법 등에서는 저수지에서 200m, 5가구 이상의 마을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가 저수지에서 30m, 마을에서 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처음에는 2개동에 200두만 사육하기로 주민들의 뜻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성이 축협 조합장의 답변 시간에 극에 달했다. 조합장은 축사철거 등을 포함한 7가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 달 22일에 총회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안전이 많아 상정여부는 불명확하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주민들은 곳곳에서 “축사 철거하라”는 구호를 외치



순천시 승주읍 축내저수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순천광양축협의 저수지 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며, 보다 적극적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저수지 물을 채수해 의뢰한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저수지 정화와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간담회는 끝났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994년 2개동으로 출발한 축협축사는 현재 7개동으로 증축됐으며, 52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축내저수지는 지난달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질검사 결과 6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고흥군이 순천대박물관과 합동으로 봉래면 사양리 봉화산 일원 조선시대 요망유적을 확인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사양리 요망유적 발굴조사 확인

화구구조·형태 원형보존 최초 사례

고흥군이 고흥 봉래면 사양리 산43-1 번지 봉화산 일원에서 조선시대 요망유적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흥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순천대박물관과 합동으로 유적 발굴조사를 진행해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펴거나 신호를 보내는 요망대와 관련된 유구 2기를 확인했다.

요망유적은 장방형의 모습으로 봉화산의 남쪽 정상부에 있으며, 사면 시 연기와 불을 피우는 시설로 요망대 사이의 거리

는 약 2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거연시설의 요망대에서는 불을 지필 수 있는 화구의 구조와 형태가 원형으로 보존된 최초 사례로서 주목된다.

거화시설의 요망대는 장축 6.6m 단축 6.0m이며, 거연시설의 요망대는 장축 3.3m 단축 4.2m이며, 관련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화구시설은 자연암반층을 다듬은 후 소형의 깨진 돌을 막쌓고 틈새를 잔돌과 진흙을 사용해 축조한 것으로 보이며, 아궁

이 시설과 비슷한 구조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순천대박물관 최인선 교수는 “고흥지역에서 기존에 확인된 20여 개소의 봉수유적과 더불어 새롭게 조선시대 요망유적을 확인한 의미 있는 조사였다”며 “고흥군을 포함하는 전남 남해안 지역의 조선시대 봉수와 관련된 문화를 복원하고 해양 관방체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고흥군은 지속적인 문화유적 발굴과 복원을 진행해 고흥의 뿌리를 찾고 나아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진종연 기자

보성, 2023년 국비 확보 ‘광폭행보’

습지원원 조성 등 6,300억 규모

보성군이 202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2개 사업, 6,300억 원 규모의 신규·현안 사업을 선정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축산 해양 분야 ▲국립갯벌습지원원 조성(1,200억 원) ▲국립남도음식진흥원설립(280억 원) ▲별교힐링소독수 조성사업(80억 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35억 원) ▲선진

IOT 스마트팜 설비 지원(20억 원) ▲겸백면 초암산 자연생태 숲길조성(20억 원) 사업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남파랑길 재생사업(368억 원) ▲보성 오폭 프름나드 낭만거리 조성(151억 원) ▲제암산자연휴양림 출렁다리 조성(50억 원) ▲서면제보성소리 공연장 조성(50억 원) ▲오봉산벼랑길 설치사업(20억 원) 등을 통해 남해안 권역 최대 규모의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보성군 2단계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300억 원) ▲봉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268억 원) ▲회전지구 하수관로 정비(98억 원) ▲용산·장수지구, 정암·비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97억 원) 등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은 이번에 발굴된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과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등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핵심 전략에 발맞춰 대응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곡성 갤러리 107

겨울 예술학교 전시회

곡성군 갤러리 107에서 다음 달 6일까지 겨울 예술학교 전시회가 개최된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겨울 예술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작한 성과물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전통 한지를 활용한 공예품에서부터 조명등, 동판 시계, 가죽 가방 등 다양한 입체 창작 활동을 통해 완성된 10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곡성군은 청소년들의 예술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3일까지 겨울 예술학교를 진행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여수,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총 200대 3,750만원씩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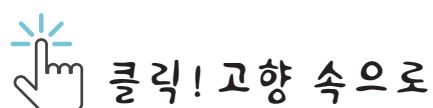
지원 차종은 ‘현대 넥쏘’이며 우선 지원 20대와 일반지원 180대 등 총 200대로 한 대당 3,7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해서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기업·법인·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다자녀, 취약계층, 생애 최초 차량구매, 택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이며 개인·업체당 1대만 가능하고 사업비 소진 시 마감된다.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제출 순이 아닌 차량 출고 순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곡성 목사동면,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

곡성군 목사동면이 최근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와 함께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목사동면은 오랜 세월 가족 관계가 단절돼 오갈 곳이 없어 주거가 불안한 고령의 노인을 위해 건축비와 토지 마련에 나섰다.

목사동면은 집행 가능한 예산을 모으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560만 원을 마련했으며,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는 3,000만 원을 쾌적했다. 지역 주민 하성관 씨는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했다.

사랑의 집에 거주하게 된 A씨는 “쾌적하고 아늑한 새집을 마련해준 목사동면과 주암댐지사에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여수산림조합, 설맞이 이웃돕기 행사

여수시산림조합이 설날을 맞이해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2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사랑 나눔 이웃돕기’ 행사를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양성세 조합장은 “함께 키운 숲을 모두가 함께 누리듯 우리 사회도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눠 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조합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산림조합은 산림경영을 희망하는 귀산촌인의 산림경영기술 컨설팅과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산림자원조성을 통해 산림소득 창출과 산림의 지속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 인맥포럼, 회장 이·취임식

순천 최대의 비즈니스 클럽인 ‘인맥포럼’이 지난 25일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해 설계를 밝혔다.

순천인맥포럼은 2018년 ‘인연을 인맥으로, 인맥을 금맥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창립했으며, 창립 2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이임하는 임용택 회장은 “사람이 모

이면 비즈니스가 창출된다”며 “지난 4년동안 지역에 봉사하는 경제인비즈니스 포럼으로 크게 성장한 것에 감사드리며,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취임하는 최형진 회장은 “모임을 정례화해 내실을 기하고 젊은 포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